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3호 【주체 제23095호】 주체99(2010)년 5월 23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우리 조국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여 누리에 존엄떨치는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은 온 나라를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여 번지게 하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찬출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으며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전례없는 대고조기상이 약동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방문에 이어 지금 무한대 전력과 강인한 의지로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걷고계신다. 백암과 대동단, 삼지연과 해산, 청진과 함흥을 비롯하여 북부지역의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장군님의 명도를 추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영광이며 찬란한 미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가 한결같이 우리르느 위대한 위인이다. 특출한 사상리론적지식과 비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운중의 행운이며 뜻없는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이번 중국방문과정은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다시금 뚜렷이 파시던 날같이였다.

이번에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두루먼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전례없는 규모와 수준에

사설

크나큰 민족적금지과와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서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국전환대하였다. 호금도동지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부강조국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면시와 친진시, 베이징과 심양시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국인민의 진심어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결출한 정치원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세 투쟁과 강성대국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이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외활동소식으로 온 세계가 끓어번지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진 격동의 나날이었으며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이 힘있게 펼쳐진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세계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이 현일 판행보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해방군보》, 《베이징일보》, 중앙TV방송과 인터넷트홈페이지 등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호금도동지와 상봉하시는 사진, 정면 등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고 특집하였다. 로씨야와 구바, 웨남, 라오스,

인디아, 미국, 영국, 일본, 우간다,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전하였다. 나라마다 국가수반이 있고 한해에도 나라들사이의 수 많은 수반급회담이 진행되고있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단 한번의 외국 방문으로 그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정치가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이자 우리 공화국의 존엄이고 영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적수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금지과와 자부심, 장군님의 명도를 추적하게 받들어나갈려는 드높은 맹세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직한 인민이며 우리 나라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대국이였다. 이번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에서 더없는 민족적금지과와 자부심을 절감하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무한대 전력에 넘치시여 수천리의 마나면 외국방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리르며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린 총성의 대오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김철과 성장, 민과 동맹, 회천 발전조건설장을 비롯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넘쳤으며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순결한 마음으로 총적하게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신념, 뜻과 정으로 굳게 맺어진 불멸의 일심단결이 있기 위하여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 우리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한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온 세계가 끝없이 호모하고 따르는 절세의 위인을 혁명의 령도자,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금지과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니고 장군님의 명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우리 조국이 빛나고 민족변영의 미래가 밝아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조선의 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추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따르려는 백승같은 총성, 장군님의 사상과 권위, 안양을 위해서라면 한복속 서슴없이 버쳐 싸우는 결사의 의지, 이것이 우리

자부심을 안고 비약을 일으키자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일련단심이다. 우리는 불분불휴의 정력과 로고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높이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향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현지지도단위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계속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드나든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강성대국의 웅대한 설계도가 있으며 오랜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된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과 확관을 가지고 대고조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는 예비와 가능방향을 최대한 동원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최첨단을 돌파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며 대고조전군의 근본비결이다. 최첨단의 돌파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오늘의 총공격전적 시기에 승리의 영예를 떨칠 비상을 각오를 안고 최첨단들과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힘있게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려는 것인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의지

용용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첨단과학기술들과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목표와 발전전략을 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맡은 자기 땅에 붙이고 세계적인 높이에서 착상하며 피라는 탐구와 정열로 이악하게 실험해 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어디에서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더 많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성과와 령도업적이 대고조의 승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자면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강연과 직관시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선전선동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철주야의 중국방문소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양양된 대중의 열의와 혁명적기세를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드세하게 벌려 온 나라에 대한 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조성된 장소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건설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원수적결의 심정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로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추적하며 받들며 대중의 앞장서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사업실적으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모두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크나큰 금지과와 자부심을 지니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전군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일념을 안고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주영미, 과학백사출현산사 산하단위 부원 최성호, 포항지구 산하단위 로동자 오진경은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백두산지구건설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난 기간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원 전일남은 혁명의 성지를 보다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망심을 바쳐가고있으며 통성고기공공공장 로동자 김숙영도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유성1타야소 소장 백영환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백두산지구건설에 힘있게 지원하였으며 경원합숙 로동자 장해영, 동대원구역의 봉사사업소 로동자

김성희도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순천전제공장 지배인 문재성, 자강도당학교 산하단위 지배인 김명희, 안주은하리복공장 조합당부서 최봉민, 자강도수출물품검사관소장 김성철은 선군시대의 일군답게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돕는데서 모범이 되고있다.

경공업성 산하단위 준비원 김현규, 로동자 류영금, 중구역 신암종합건설로 약국장 김현희, 통성교공업총합점 책임자 정정실은 백두산지구건설에 모범을 두는것을 공민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원사업에 성의를 다하고있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심정으로 김주군 영복상점 책임자 김인숙, 영남상점 판매원 리신숙, 사리현시 운하1동 64인민반 배영희, 평성시 역전동 13인민반 고성심도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여 빛내이며 당창건 65돐을 축하하는 대추적으로 맞이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제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제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 국제장인 아반 마커 까브라지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선물을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 본사기자

대고조의 불길높이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일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가집니다.》

온성지구관관련 합기업소에서

온성지구관관련 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 올리였다. 4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이들은 5월에도 더욱 분발하여 막장마다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면서 기세풍계 내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강, 막장들에 들어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대 기초하여 생산조건이 유리한 구역들에 제탄장을 새로 꾸릴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막장마다에 총공격적인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주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성지구관관련합기업소이데 탄광들과 금야첨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에 위대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유성1타야소 소장 백영환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백두산지구건설에 힘있게 지원하였으며 경원합숙 로동자 장해영, 동대원구역의 봉사사업소 로동자

이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맞게 보장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설비부속품과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게 하고있다.

학로탄광에서는 석탄채취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에서는 많은 량의 박토를 처리하고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석탄운반선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들이면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고있다. 체탄을 맡은 탄부들은 서도 들고 이끌면서 앞선 단계기 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상하첨전탄광에서는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을 앞세워 탄발을 넉넉히 마련한대 기초하여 압질조건에 맞는 천공깊이와 각도를 보장하고 발파효율을 높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 도 석탄생산량을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탄광의 굴진공들은 합리적인 동발드리기와 앞선 발파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강안탄광과 풍원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서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금야첨전탄광에서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의 책임일군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금야첨전탄광의 석탄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작전을 힘있게 펼치고 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검철소서

5월 철강재생산계획 넘쳐 수행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1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18일 현재 5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비대한 열의를 안고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낮과 밤이

다행한 생산전투를 벌리었다. 용해1, 2작업반의 생산자들은 차지당 용해시간을 단축하며 출강회수를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들은 설비편리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죄물생산에서 전례없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련속조작업반의 생산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연구토론회

스위스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년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12일 스위스 로잔느중앙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물리 칼브루스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은 국제적단결과 반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참담계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필승요구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 및 국가건설 등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주창선

혁명일화

랑 강 도 습 장 화

삼지연군, 백악군을 거쳐 해산시에 이어서있는 현지도의 길이었다.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발걸음과 나란히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가 초록이 짙어가는 5월의 해산시를 달리 고있었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명랑한 모습도 비쳐지고 땀에 젖은 녀인들의 웃음도 얼굴도 정답게 비쳐지는 암흑강변을 따라 달리던 야전차는 어느덧 해산신발공장에 들어섰다.

결불안이라고 공장밖은 공원처럼, 공장안은 궁전처럼 꾸려놓고 중산의 동을 높이 올리우고있는 신발생산자들의 작업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냥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수준에 맞는 현대적이고 신기도 편리한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콤퓨터에 의한 생산지휘체계에 따라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생산라인에 따르는 현장들을 돌아 보시고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손신발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추운 지대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겨울신발들이요.

그중에서도 두렵게 숨을 넣고 땀이 있 게 끈을 조여매게 만든 목이 긴 손 신발을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앞고승이와 바닥, 뒤축을 비롯한 전 반모양새가 활동에 편리하게 생긴 손 신발은 누비기도 탐탁하게 잘 누벼져 보기만 해도 저절로 발이 따스해지는 것만 같았다.

신발을 손에 드시고 세심히 보시며 주는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목높은 림업용신발》이라고 쓴 제품이름에서 오패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하나의 신발이름을 두기도 그토록 마음 쓰시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장을 다 돌아 보시고 공장마당에 나서시었다. 때였다.

공장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문득 《림업용신발이라...》하고 되뇌이 시는 것이었다.

그이께서 신발이름을 왜 지우만 의 위시는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의아해

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공장에서 만들고있는 목이 긴 손신발은 림업로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주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지 일군들은 저지마다 신발이 정말 육식이 난다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 였다.

이 신발이 좋다고 벌써 소문이 나서 《림방》(림업용신발이라는 뜻), 《림방》(림업용신발이라는 뜻), 《림방》(림업용신발이라는 뜻)을 생산하는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

해산신발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성수가 나서 이야기하는 일군들의 자랑을 무릅쓰고 다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공장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울 리게 이름도 잘 붙여야 하였습니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 산품인것만큼 신발이름을 량강도습 장화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량강도습장화! 어웁습니까.》

정말 신룡한 이름이었다. 듣는들하면서도 멍시었고 따스한 감을 주는 신발의 모양과 특성이 함축되면 서도 제품상지와 리용대상까지 대변에 일수 있는 명백한 이름이었다.

일군은 눈시울을 습벽이었다. 언덕 언덕마다를 더운 날보다 추운 날이 더 많은 북방에서 사는 인민들의 신발문제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하 는 어버이장군님이시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전선길을 달리 시 다가도 병사들의 숨웃이며 손신발의 두께가 얇지 않는지 근심스러우시어 문득 차를 멈추시던 장군님.

눈덮인 고산대지에서 생활하는 혁명 전진지강사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발이 시려할세라 습장화를 보내주소록 하시던 자애로운 모습이 동행한 일군 들의 눈앞에 숭엄하게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신 발을 신고 마음 편히 살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시며 잠 못 이루시던 경애하는 그이이시었다.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모양이고 질 좋 은 손신발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 급해주고있는 사실이 너무도 장교고 기특하여 우리 장군님의 기쁨은 그리 도 끈겼이었다.

《추운 고생을 하는 북방사람들을 위하여 이 공장에서 정말 훌륭한 일 을 하였습니까.》

나는 인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이런 공장을 돌아볼 때 제일 기분이 좋 습니다.》

민사람의 심장을 후덕하게 하는 절절 한 말씀이었다.

한결레의 신발을 놓고도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마다가 깊은 뜻을 새겨주고있었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마음을 합쳐 신 발생산의 최전선에 오르기 위하여 아 골라갈 애써온 투쟁의 흔적이 력력한 지 변인의 모습을 미더웁게 보고 또 보시 면서 동무가 지금 신고있는 운동화까지 공작제품인가고 하시는 장군님의 물음.

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운동화입니 다라는 대답을 드리고도 공작이란 말이지, 공작이란 말이지, 지베인의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고 외우 고 또 외우시는 장군님의 말씀.

인민들과 똑 같은 신발을 신고 인민 을 위한 총복으로 일하라, 비록 자기 는 않은 운동화를 신더라도 인민들 에게는 두터운 총장화를 마련해주기 위 하여 열정을 바치는 티없이 깨끗한 마 음을 간직하라, 그런 일군의 마음에서 부터 사람들의 발을 덥혀줄 진정한 사 랑이 싹트는것이라는 위대한 어버이 의 연속한 깨우침이 일군들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정겨 울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로 지시하며 말씀하시었다.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멋있 은 습장화를 더 많이 만드시오. 약속 합시다. 추운 겨울날 이 고장에 오면 나도 량강도습장화를 사신것소!》

한없이 다정한 음성이었다. 자애에 넘치는 눈빛으로 뜨거운 약속을 남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일군들은 목이 메었다.

자신께서는 수수한 신발을 신고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도의 강행 군길을 걸으시면서도, 자신께서는 수 수한 야전복을 입으시고 1년 365 일 강행군길에 계시면서도 인민들에게 는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따뜻한 식 로품에 훌륭한 살림품을 마련해주시 러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어머니.

과연 그 누가 한결레의 손신발을 두고도 인민을 위해 그릇껏 가슴뛰어 본지 있었던가.

량강도습장화,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름이 아니었다. 마안산도라는 이름이 단순한 모포 이름만이 아니고 삼일포독산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식료품이름이 아닌것처럼, 《봄향기》라는 이름이 단순한 화장품이름만이 아니고 풍우유차라는 말이 내세울수 있는 훌륭한 겨울신을 만들 어낼 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는, 우리 군에서는 자기 힘으로 만들 어낸것이 무엇인가.

백두산기슭 량강도에서 인민들에게 웃음꽃을 피워주는 량강도습장화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호탕이라는 말이 태어나고 녀성들이 엄지손을 짚는 삼지연장이라는 말이 태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때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놓았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진정한 것으로 기쁨이 되는 인민의 복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새운 발은 얼마였던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젖어 어머니장군님을 바라워 드리는 때 또다시 현지도의 길을 이 어가는 인민행야전차는 굽이굽이 평길 을 따라 아득히 멀어지고있었다.

야전차는 멀어져도 그이께서 남기신 절절한 말씀은 더욱더 큰 메아리로 사 랑들의 마음속에 울려오았다.

추운 겨울날 이 고장에 오면 나도 량강도습장화를 사신것소!

그것은 고마운 우리 당과 인민을 하 나의 피골기로 더욱 굳게 이어주는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메아리였다.

본사정시보도판

불패의 군력을 다시시던 나날에

인민군대가 제일

주제 49 (1960)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 땅 구부대를 찾으시었다.

군인회관 정문체양우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 하자!》라는 구호가 정중히 새겨져있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시습없이 바쳐 싸우려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구호였다.

승업한 표정으로 구호를 바라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저 구호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담은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숭고한 의지로 하여 전군의 주체사상화가 비상한 속도로 다그쳐지고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투사들로 자기의 위 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펠 펠 나는 싸움군으로

엔제인가 전군 해당 부문 일군을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혼련판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

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혼련판은 혁명투쟁의 주인이며 혁명전쟁의 직접적담당자인 군인대중을 중심에 놓고 혼련에 대하여는 판

점과 태도이며 주체의 혼련판 을 세운다는것은 혼련을 혁명 전쟁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로 보며 혼련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군인의 참된 삶의 보람으 로 여긴다는것을 말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서한 에서 혼련에서 주체적 원칙 을 구현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

하여 우리 식의 독자적인 혼련 원칙을 제시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서한은 군건설과 활동에서 혼련에 대한 전일적인 사상을 밝히 고 완벽한 대담을 준 불멸의 기록로, 현대의 모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강군육성의 길 을 과학적으로 명명한 불멸의 대강조도 빛나고있다.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주제 56 (1967)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어 온 나라를 철 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강령을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해도 인민들이 총을 잡지 않으면 물먹은 담뱃처럼 무너지며 반대로 군대와 인민이 한데 뭉 치면 우세한 적도 라손한다는

세계전쟁사의 심각한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소양 창유격근거리방위전투를 실행 도 드시면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한전 호에서 결사전을 벌릴 때 어 떤 강경도 라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것이 조선혁명사의 고귀한 총화이며 진리라고 강조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 과 함께 민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전민무장화 방침은 더욱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되었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 력의 요새로 꾸리는데서 력사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성국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배풀어주시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주시어... -대성산혁명렬사들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작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에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사 나

에멘공화국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각하

나는 에멘공화국 국경절 20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귀국정부와 인민은 지난 20년간 나라의 통일과 안전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단합과 경제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 면서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5월 21일 평 양

개성도시간선사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투사들이 지녔던 함소 당조직에서 협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중 앙원들이 혁명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매월 회상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두가 그에 따라 학습을 정성적 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부터 회상 기의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보와 연 구발표모임, 이야기모임 등을 진행하여 중 앙원들이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투혼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 록 하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중 앙원 들의 가슴속에서는 모든 일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려는 불타는 열의가 끓어넘치고있다.

로동동원원 합영수

최후의 결승선으로 부르는 승리의 총성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을 맞으며

위전으로 짓부셔버린 탁월한 군사적지략...

당시 일제는 침략전쟁의 확대에 퍼논이 되어 날뛰면서 승고한 후방 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수탈과 파괴적폭압에 광분하 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 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해산사건》이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서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과 북부조선인민의 일부 혁명조직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일제는 《해산사건》후 조 선인민혁명군이 망했다는 선전을 악랄하게 벌리었다.

이런 조건에서 항일혁명을 양양시 킵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조선인혁 명군의 대부대가 국내로 진출하여 적들을 쳐살고 인민들에게 조국해 방의 신심을 안겨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내외의 정 세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시어 무 산지구전투 승리를 결심 하시었다.

당시 국경지대에는 일제의 가장 악질적인 수비부력이 증중되어 등 지를 뽐내고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산지구전공작전을 단행한다는것 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지기에 진출하여 적 들을 무리로 쓸어버리게 되면 북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평안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안북도현지도 10돐 기념보고회가 21일 신의주에서 진행되였다.

도내 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형태 도당위원회 책임비 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5월과 6월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사업을 현지도하시면서 두가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 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신의주화장품공작전설 장 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업의 요구대로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구

내를 수립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년별, 박천전직공작전에서 설비를 현 대화, 고숙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단웃음을 더 많이 생 산할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 쳐주시었다고 그는 말씀하시었다.

그는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계공업을 발전 시키야 경쟁력과 농업을 새로 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시는데 대 하여 강조하시었다.

신의주주의 도시경영사업과 남신의주지구 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내를 수립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년별, 박천전직공작전에서 설비를 현 대화, 고숙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단웃음을 더 많이 생 산할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 쳐주시었다고 그는 말씀하시었다.

그는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계공업을 발전 시키야 경쟁력과 농업을 새로 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시는데 대 하여 강조하시었다.

신의주주의 도시경영사업과 남신의주지구 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평안북도에서

김형태 도당위원회 책임비 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5월과 6월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사업을 현지도하시면서 두가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 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신의주화장품공작전설 장 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업의 요구대로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구

내를 수립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년별, 박천전직공작전에서 설비를 현 대화, 고숙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단웃음을 더 많이 생 산할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 쳐주시었다고 그는 말씀하시었다.

그는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현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계공업을 발전 시키야 경쟁력과 농업을 새로 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시는데 대 하여 강조하시었다.

신의주주의 도시경영사업과 남신의주지구 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평안북도에서

김형태 도당위원회 책임비 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5월과 6월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사업을 현지도하시면서 두가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 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신의주화장품공작전설 장 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업의 요구대로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구

내를 수립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년별, 박천전직공작전에서 설비를 현 대화, 고숙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단웃음을 더 많이 생 산할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 쳐주시었다고 그는 말씀하시었다.

신의주주의 도시경영사업과 남신의주지구 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평안북도에서

김형태 도당위원회 책임비 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5월과 6월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사업을 현지도하시면서 두가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 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신의주화장품공작전설 장 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업의 요구대로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구

내를 수립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김동철

절세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쌀로써 빛내일 드높은 열의

강서구역 3중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영광의 그 봄날을 안고 살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그러지는 강서구역 3중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 한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산강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 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위입니다.》

이 땅의 농민들 모두가 봄을 사랑하지만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속에 봄은 뜻 깊은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진 귀중한 계절이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5월 12일, 청산강은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다. 이날 청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몸소 모를 내시면서 모내기 제철을 집중적으로 끝낼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영광의 그 봄날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사는 청산리사람들이다.

반이안은 사랑에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청산리 농민들이라 하랴.

당장전 65흙을 맞는 뜻깊은 올해 청산벌에 풍년농작소리를 높이 울릴 각오로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내기전 투진비에 지체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쳤다.

별들도 잠든 깊은 밤, 농장기

제화작업반에서는 밤도둑처럼 빛이 꺼질 줄 몰랐다. 리명학, 한성진동무를 비롯한 기계화작업반원들이 열양행삼모, 큰모 등 여러가지 종류의 모를 내는 동시에 비료심종시비를 할수 있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느라 한 밤을 지새우고있었던것이었다. 피곤을 이겨내며 바빠 일손을 늘리는 기계화작업반원들을 도와주면서 농장일군은 조용히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한성진동무는 뜨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의 기계화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습니까. 받아안은 사랑에 찬탄문의 일도 보답하지 못한것만 같아 발뺌질을 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그러했다. 모내는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는 농민들이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계화하면서 청산리에 제일 먼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농장을 찾으신 봄날 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고 그리고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기계화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진할 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겨주었다. 모내가 시작되자 절에 모내는기계를 조립을 전부 끝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 전야에서는 눈같이하는 트랙터의 발

둥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기사장 김영식동무를 비롯한 농장기술일군들은 눈같이한 기계화작업반원들이 유려한 조연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냈다. 그 방안이 바로 제자리보수에 의한 눈같이하는 밭을 이는데 있었다. 눈같이할 때 흙 밭파우이동이 거의 없어 논산수정보수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이 보수를 적극 리용함으로써 농장에서야는 씨뿌리기속도와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하였다.

얼마전 눈같이하듯 말끔히 끝나고 생명을 흘려버린 제6작업반포진에서는 트랙터로운전수들을 위한 씨뿌리기기술전습이 진행되었다.

실지동작을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기계화작업반일군의 씨뿌리기모르는 트랙터로운전수들의 머리에 깊이 새겨졌다. 씨뿌리기속도와 질이 페넨이 없이 높아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모를 내신 휘두름의 포진을 유려한처럼 매끈하게 씨뿌리느라 구슬땀을 흘린 김일성동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경쟁적으로 작업실적을 올린 트랙터로운전수들... 어찌 기계화초반들만이라. 불리한 올해 봄철날씨가 거역하고 올레 모내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농장원들의 신장의 열기로 청산벌은 더욱 끓어번졌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 있는 제3작업반 3분조포진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전 65흙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가 한창이다. 바둑판처럼 펼쳐진 드넓은 밭둑들, 봄바람에 나뭇잎이 푸른 기발들, 방수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경거노래 소리로...

풍년로작가리를 높이 쌓아올릴 불타는 열정을 안고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전투장은 부류부류 끓는다.

유리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포진에 푸른 주단을 펼쳐가는 모내는기계의 밭둥소리가 고르롭게 울려 퍼진다.

《넙다 달랠 오늘계획을 오전중에 해제기자.》

《모는 격정마냥.》

탄약공급마냥 포함들을 연방 눈속에 날라다닐수있어서 취급물수가 한마디 하자 날뚱한 동작으로 모추를 집어넣던 김인심, 리향순동무들이 웃으며 화답한다. 모내기전투장에 로동자의 희열이 넘쳐난다.

본사기자 서 승 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가 푸른 가을을 확인한 운전공 최명은 동무가 모내는기계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풍년가을로 이어진 직선주로를 향해 달려나가듯 내달리는 모내는기계가 지나간 뒤로는 마치도 푸른 주단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이것 못할 그 봄날 휘두름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과 함께 몸소 환포기환포기 모를 찾으셨어 오늘 우리 농장원들은 흥겹게 노래부르며 모내는기계를 모를 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작업반장인 민경남동무가 하는 말이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심장을 새겨 두듯 불타는 열정을 안고 달려나선 청산리사람들이다. 방수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찬란한 《청산강에 풍년이 왔다》가 흥취를 돋구는 속에 포진들이 푸르게 단장되어간다.

본사기자 서 승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 있는 제3작업반 3분조포진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전 65흙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가 한창이다. 바둑판처럼 펼쳐진 드넓은 밭둑들, 봄바람에 나뭇잎이 푸른 기발들, 방수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경거노래 소리로...

풍년로작가리를 높이 쌓아올릴 불타는 열정을 안고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전투장은 부류부류 끓는다.

유리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포진에 푸른 주단을 펼쳐가는 모내는기계의 밭둥소리가 고르롭게 울려 퍼진다.

《넙다 달랠 오늘계획을 오전중에 해제기자.》

《모는 격정마냥.》

탄약공급마냥 포함들을 연방 눈속에 날라다닐수있어서 취급물수가 한마디 하자 날뚱한 동작으로 모추를 집어넣던 김인심, 리향순동무들이 웃으며 화답한다. 모내기전투장에 로동자의 희열이 넘쳐난다.

본사기자 서 승 호

기술기능수준제고에 모를 박고

통천교복공장 초급당위위원회에서

통천교복공장 초급당위위원회에서는 중급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기로 하는데 모를 박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당의 경공업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첫 봄생산계획을 끝낸 자랑을 안고 총화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신입노동자들이 뜻깊은 올해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할수 있게 애국총출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여 기술기능수준도 높이고 생산에서도 혁신을 이끌어 고급기술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사실을 매우 존중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신입노동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면서 그들을 3대혁명붉은기정추진운동 영예등용장에 등록하고 사기도 켜어 영예시판에 내붙이도록 하였다.

이들 계기로 초급당비서 리찬명동무는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결코 년한이 문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정평군 룡성리당위위원회에서는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면한 영웅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영웅적사업이 작업반, 분조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분조장, 작업반장들과 부락당비서, 당세포비서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데 따라 한해농사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자각하고 일해나가기로 잘 이 끌어내고있다.

제1, 7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자적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흥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입니다.》

모내가 시작된 청산벌을 찾았던 우리는 봄바람이 푸른 벼모임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제4작업반 모판머리에서 한권의 책을 보게 되었다. 해마다 실한 벼모를 키워 모내기에 기여한다는 제4작업반 2분조 모판관리공 홍명주동무의 모판관리일지였다. 그 일지를 펼쳐는 우리는 벼모종과 씨뿌린 날자를 적어넣

모판관리공의 《전투기록장》

은 모판락에서 눈길을 땀수 없었다. 책임성분은 모판관리공의 간진 일본새가 그 모판락도를 통하여 성히 언거었다.

《올 16일, 날씨 개인...》

작이 터나왔을 때, 비날막막 상례를 걸림하고 대책을 세웠다.

매일 시간별로 대기 및 모판 온도를 기록해놓는 모판관리일지에는 다 비겨있었다. 갑자기 벼모이는 온도에 작 씩터나온 벼모들이 피해를 입을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나와 박막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판관리정형이 기록된 일지를 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반드시대로 자연의 횡포를 물리치고 벼모를 키우는 일, 그것은 순간도 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벼모키우기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모판관리공들모두가 청산벌의 《전투원》들이었다.

모판관리일지, 그것은 뜻깊은 올해의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엄으로 수놓아가는 청산리 농장원들의 《전투기록장》이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하루도 빠짐없이 모판관리정형이 기록된 일지를 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반드시대로 자연의 횡포를 물리치고 벼모를 키우는 일, 그것은 순간도 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벼모키우기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모판관리공들모두가 청산벌의 《전투원》들이었다.

모판관리일지, 그것은 뜻깊은 올해의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엄으로 수놓아가는 청산리 농장원들의 《전투기록장》이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모내기전투로 들끓던 영광의 땅, 청산벌에 어둠이 깃든 어느 날, 청년작업반의 포진들을 돌아 보던 농장일군은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3분조포진에서 전지불을 띄어보았지만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혁신자로 소문난 부자트랙터운전수 홍재훈, 홍명철동무들이었다.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트랙터관리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홍재훈동무가 아들들을 이끌고 모내기전투에 앞장서고 있었다.

본사기자 서 승 호

모내기전투로 들끓던 영광의 땅, 청산벌에 어둠이 깃든 어느 날, 청년작업반의 포진들을 돌아 보던 농장일군은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3분조포진에서 전지불을 띄어보았지만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혁신자로 소문난 부자트랙터운전수 홍재훈, 홍명철동무들이었다.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트랙터관리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홍재훈동무가 아들들을 이끌고 모내기전투에 앞장서고 있었다.

본사기자 서 승 호

역적패당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에 엄숙히 통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리명박적패당이 《천안》 호침물사건을 우리와 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끝끝내 침략침탈을 우리의 어뢰공격에 있는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측은 5월 22일 10시 서해지구 북남판리구역을 통하여 우리 검열단을 내려보내겠다는것과 그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신변안전을 포함한 현지활동보장대처를 세울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내보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천안》호가 우리의 어뢰공격으로 침

몰려왔다는 사실이 내외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여 최종확인되었는데, 이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당시에서 다루어야 하며 북은 그 결과를 통보받고 《성실하게 접수》하면 된다니 하면서 우리측 검열단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회담통지문을 보내었다.

특히 피괴국방부 장관 김태영이라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우리의 검열단파견리정장을 헐뜯다 못해 《용봉의 대가》와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제쳐대면서 국악한 대결광신자, 군부광대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지금까지 조선시해해상문제를 북남군부가 직접 다루어왔

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때 미행정부도 조선시해문제는 저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공식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그 존재자체가 이미 사멸된 이 국사정전위원회》라는 유명 기구를 끌어들이려는 행태의 명분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

시 내보냈다.

남측의 5월 21일부 회담 통지문은 우리의 존엄을 또다시 헐뜯는 불완전 도발이며 과학적인 강도제한을 하였다.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것도 남측이며 그 부순 《합동조사결과 보고》를 전후하여 끝끝내 우리와의 대결을 공언한것도 남측이다.

남측이 이러한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하여 북남사이의 문제로 날조된것만은 여기에 국사정전위원회》라는 유명 기구를 끌어들이려는 행태의 명분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

성실한 땀을 바쳐

모내기전투로 들끓던 영광의 땅, 청산벌에 어둠이 깃든 어느 날, 청년작업반의 포진들을 돌아 보던 농장일군은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3분조포진에서 전지불을 띄어보았지만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혁신자로 소문난 부자트랙터운전수 홍재훈, 홍명철동무들이었다.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트랙터관리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홍재훈동무가 아들들을 이끌고 모내기전투에 앞장서고 있었다.

본사기자 서 승 호

들끓는 전투장에 활력을 부여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자기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계수실을 똑바로 하면 사상사실증언이 실속있게 잘할수 있습니다.》

철산군의 농장원들에게 찾아가면 모내기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우리 당의 정책을 널리 해설전전하는 나시지 않은 농장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이 바로 철산군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이다.

그들은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지만 당의 초급선진일군이 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적기백과 열정에 넘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로 불러일으키는 강연선전활동을 화신으로 폐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내기전투가 시작되기 전이

철산군의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자기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계수실을 똑바로 하면 사상사실증언이 실속있게 잘할수 있습니다.》

철산군의 농장원들에게 찾아가면 모내기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우리 당의 정책을 널리 해설전전하는 나시지 않은 농장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이 바로 철산군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이다.

그들은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지만 당의 초급선진일군이 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적기백과 열정에 넘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로 불러일으키는 강연선전활동을 화신으로 폐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내기전투가 시작되기 전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적극 추진

문천강철공장에서

문천강철공장에서 전기로의 승강장치에 컴퓨터조종제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체계의 도입으로 권력파전구, 대화로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차지단 용해도를 넘전보다 훨씬 줄여 쇠물생산을 늘이고 강질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과 로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를 적극 추진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공장에서는 전기로의 승강장치를 개조할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에 달려보았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최첨단을 통과하려는 열의를 안고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치고 합구를 거듭하여 승강장치에 도입할 우리식의 새로운 종합적인 컴퓨터조종제제를 개발완성하는데 성공

하였다.

그들은 미상한 정신력과 실천력을 발휘하여 수감장치들과 측정, 수행기구 등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능률적인 프로그램들도 개발하였다.

공정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장강군 장평리당위원회에서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대중이 거기에 얼마나 자각적으로, 정열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과 정열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강군 장평리당위원회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당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정추진을 위한 문화혁명과업수행의 한 고리로 제3작업반에 한중안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할 때에 있는 일이다.

그때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부 농장원들도 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속에 들어가 선진생활의 요구에 맞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대중이 거기에 얼마나 자각적으로, 정열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과 정열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강군 장평리당위원회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당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정추진을 위한 문화혁명과업수행의 한 고리로 제3작업반에 한중안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할 때에 있는 일이다.

그때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부 농장원들도 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속에 들어가 선진생활의 요구에 맞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대중이 거기에 얼마나 자각적으로, 정열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과 정열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강군 장평리당위원회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당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정추진을 위한 문화혁명과업수행의 한 고리로 제3작업반에 한중안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할 때에 있는 일이다.

그때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부 농장원들도 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속에 들어가 선진생활의 요구에 맞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대중이 거기에 얼마나 자각적으로, 정열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과 정열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강군 장평리당위원회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당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정추진을 위한 문화혁명과업수행의 한 고리로 제3작업반에 한중안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할 때에 있는 일이다.

그때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부 농장원들도 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속에 들어가 선진생활의 요구에 맞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



본사기자 서 승 호

본사기자 서 승 호

본사기자 서 승 호

본사기자 서 승 호

도도히 굽이치는 애국의 대하, 민족성고수의 열풍

해의교로운들의 믿음직한 선구자, 애국운동의 견결한 수호자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다. 지구 일본 땅 한반도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 총련 제2차 전체대회가 진행되고있다.

제일조선인운동의 년대기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애국의 폐지를 기록하게 될 이 뜻깊은 날에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밑에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높이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전진군열을 다그치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애국위업의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을 나날들을 긍지높이 들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일조선인운동은 우리의 가장 위력한 해외교포운동이며 신스러운 애국애족의 운동임이다. 제일조선인운동은 그 열매에 난 관도 있고 시련도 있을수 있으나 위대한 주체사상과 위대한 사회주의교양이 있고 위력한 총련조직이 있는 한 언제나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총련 제21차 전체대회는 언제든 때로부터 지난 3년간은 총련이 결성하는 모진 시련과 역경을 동포대중의 입신단절된 위력으로 과감히 뚫고 헤쳐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애국위업의 로정우에 전력한 자욱을 남긴 역사적인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었다. 나날이 우세해지는 일본분자들의 악랄한 총련말살책동과 비열한 민족차별, 동화책동에 총련은 결연하게 시련과 난관을 헤쳐야 하였다. 이런 준엄한 역경속에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단결된 힘으로 애국의 한길에 꽃이 겹치었다.

지난 2007년 5월 동포대중의 드높은 애국열의와 애국위업의 자랑찬

성과속에 열린 총련 제21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신 21세기 제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따라 민족성과 동포애로 단합된 화목하고 유족하며 힘있는 제일동포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조국평에 펼쳐질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에 넘쳐 내다보면서 대회에서 결정형태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방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용약 펼쳐나갔다.

가혹한 시련과 도전의 광풍이 총련이 헤쳐나가는 애국의 항로를 끈질기게 막아나갔다. 총련조직에 대한 일본분자들의 파괴와 탄압책동은 그 악랄성에 있어서 실로 류례없는 것이었다. 일본분자들은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총련의 각종 기관들과 동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미쳐달뻐하였다.

그러나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주저않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결연히 펼쳐나갔다.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위투쟁현황들은 일본분자들의 무지막직하고 횡포무도한 탄압책동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 지기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려는 동포들의 견결한 의지로 세차게 끓어오르였다. 일본분자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살벌한 탄압소동으로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와해분열시키려고 꾀하였지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권 지지와 영예를 안고 꽃피어 삼켜 싸워나가는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고 제일동포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피주신 위대한 사회주의의 조국이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으며 총련에귀속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동포들모두의 가슴속에 차나친 확신이었다.

동포대중의 양양된 애국열의에 맞게 총련은 각종 조직들을 더욱 강

화하고 일군들과 동포들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다지는것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

지난 2008년 5월말에 열린 제일조선인총련합의 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에서는 뜻깊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기총조직들을 더 잘 꾸리고 조직체제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데 선차적인 힘을 들이며 그 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회의이후 각지 동포들은 《애국적열정을 안고 9월의 대추전장로 달려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총련의 애국애족사업에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갔다.

각급 총련조직들은 모든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지키기 위한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회의이후 각지 동포들은 《애국적열정을 안고 9월의 대추전장로 달려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총련의 애국애족사업에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갔다.

이 나날에 총련은 애국위업의 불멸의 보루,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 갔다. 이영맹께서는 높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살고는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자기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3년간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을 제일동포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항구적인 운동으로 틀어쥐고 강력히 펴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조도대중을 이끌고,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 애국애족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조선사담되찾기

운동》의 심화발전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일본우익분자들이 총련에 대한 정치적탄압기도를 로파화하면서 동포사회자세를 없애려고 악착스럽게 날뛰고있는 현실은 동포들모두를 동포민족권에 굳게 결속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총련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철저히 동포중심, 생활밀착으로 전환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다 동포민족권에 망라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를 꾸리며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갔다.

《동포되찾기운동》에서 본보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체제가 중앙으로부터 전부, 지부에 창설되도록 잘 꾸리고 그 핵심대렬을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다. 각급 총련일군들은 총련조직이 동포들속에 뿌리박고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에만 불멸의 위력을 지닌다는 진리개념을 새기고 동포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유능한 선진교양자, 동포들에게 현실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총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나날에 총련은 애국위업의 불멸의 보루,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 갔다. 이영맹께서는 높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살고는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자기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3년간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을 제일동포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항구적인 운동으로 틀어쥐고 강력히 펴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조도대중을 이끌고,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 애국애족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조선사담되찾기

운동》의 심화발전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일본우익분자들이 총련에 대한 정치적탄압기도를 로파화하면서 동포사회자세를 없애려고 악착스럽게 날뛰고있는 현실은 동포들모두를 동포민족권에 굳게 결속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총련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철저히 동포중심, 생활밀착으로 전환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다 동포민족권에 망라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를 꾸리며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갔다.

《동포되찾기운동》에서 본보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체제가 중앙으로부터 전부, 지부에 창설되도록 잘 꾸리고 그 핵심대렬을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다. 각급 총련일군들은 총련조직이 동포들속에 뿌리박고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에만 불멸의 위력을 지닌다는 진리개념을 새기고 동포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유능한 선진교양자, 동포들에게 현실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총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나날에 총련은 애국위업의 불멸의 보루,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 갔다. 이영맹께서는 높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살고는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자기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3년간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을 제일동포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항구적인 운동으로 틀어쥐고 강력히 펴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조도대중을 이끌고,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 애국애족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조선사담되찾기

《조국과 나》 등의 주제로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제일동포들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 수십년세월 조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총련의 투쟁로정과 일본분자들의 악랄한 민족차별책동속에서도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사수하고 민족문화를 꽃피우는 동포사회의 력사를 반영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공헌하였다.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동포사회에 애국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였다.

이 과정에 총련 도교도 에도가와 단합된 동포사회를 꾸리며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갔다. 《동포되찾기운동》에서 본보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체제가 중앙으로부터 전부, 지부에 창설되도록 잘 꾸리고 그 핵심대렬을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다. 각급 총련일군들은 총련조직이 동포들속에 뿌리박고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에만 불멸의 위력을 지닌다는 진리개념을 새기고 동포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유능한 선진교양자, 동포들에게 현실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총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나날에 총련은 애국위업의 불멸의 보루,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 갔다. 이영맹께서는 높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살고는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자기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3년간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을 제일동포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항구적인 운동으로 틀어쥐고 강력히 펴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조도대중을 이끌고,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 애국애족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조선사담되찾기

투쟁 60돐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우리 학교들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들에서는 제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우리 학교를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는데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합쳐나갈 동포들의 열성의 의의가 새겨져서 새겨져 나왔다. 각 계층 동포들은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련과 동포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애국애족의 대를 꽃피우기 위하여 애국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였다. 이 과정에 총련 도교도 에도가와 단합된 동포사회를 꾸리며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갔다. 《동포되찾기운동》에서 본보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체제가 중앙으로부터 전부, 지부에 창설되도록 잘 꾸리고 그 핵심대렬을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다. 각급 총련일군들은 총련조직이 동포들속에 뿌리박고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에만 불멸의 위력을 지닌다는 진리개념을 새기고 동포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유능한 선진교양자, 동포들에게 현실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총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나날에 총련은 애국위업의 불멸의 보루,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 갔다. 이영맹께서는 높은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살고는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자기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3년간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을 제일동포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항구적인 운동으로 틀어쥐고 강력히 펴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이룩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조도대중을 이끌고,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 애국애족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조선사담되찾기

결산되어야 할 살인 《정권》의 죄악

남조선에서 전 《대통령》 로무원의 비극적 사망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 일리치비와 같이 퇴임후 고향마을에 내려가 살던 로무원이 지난해 5월 23일 이른새벽 집위신의 높은 바위에 돌을 던져 목숨을 끊는 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비극적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 남조선 보수세력의 계획적인 음모책동에 의해 빚어진 타살이며 추악한 정치보복적인 살인행위이다.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아니함께 여진 보수세력은 이미 집권전부터 로무원을 《과파》로 몰아대면서 그에 대한 《탄핵》소동을 일으키는 등으로 《로무원추기》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 무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집권한 보수세력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칼을 뽑아들며 겨냥한 주되는 대상도 10. 4 선언체결사자인 로무원이었다. 과파정부는 로무원을 저들의 반인민적행위로 일어난 초법외위헌적 《배후세력》으로 몰아대고 나중에는 그 무는 《불법자금사건》이라는것을 꾸며내어 그에게 온갖 정선속제고통을 들이쳤다. 보수당국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정치보복적인 도막책동에 더는 견딜수 없게 된 로무원은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로무원사상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지지하고 헌법공헌을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을 모조리 탄압말살하며 북한관계를 극단적인 대결구면으로 끌고가려는 보수세력의 정치적보복과 과파정권의 살인마는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로무원사상당시 《술품》이나, 《예도》나 하였지만 그것은 분노한 민심을 녹여주고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억지로 짜낸 《악어의 눈물》이었다. 거기에는 로무원살해에 작지 않고 악랄한 정치보복적인 리행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모든 통일민주세력의 것을 말리려 앙심만을 번뜩였다. 남조선에서 갈수록 살벌해지는 피피들의 진보세력말살책동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5. 18정권으로 투쟁해나갈것을 선언

남조선 광주의 금남로에 있는 옛 전라남도청앞에서 17일 《5. 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전야제》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남조선전지역의 대학생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 등 3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광주항쟁용사들과 좌주, 민주, 통일을 쟁취하며 좌주군부세력의 독재를 반대하여 결연히 떨쳐나 싸우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날의 정신을 이어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력말살과 파쇼폭압의 일층 강화에서 왔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다. 얼마전 《한나라당》퍼거리에서는 그 무는 《신기대혁명출정식》이라는 데서 시계목은 《색각력》을 모조리 잃어 울리며 진보세력들을 《친북파괴》로 몰아대고 못헤 제련에서 《무책임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고이였다. 한편 보수세력은 도막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류례없는 《안보》소동을 일으키면서 동족과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모조리 《빨갱이》의 감투를 씌워 처형할 흉계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최초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을 내몰아 민주총파과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 진보단체들과 그 소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과 체포, 징계소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친북파괴작전》소동을 일으켜 여론의 이목을 떠돌게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반 《정부》기운의 무정부에서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파쇼독재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또 하나의 악랄한 음모책동이다.

현실은 진보세력들의 각성과 단결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로무원의 비극적인 사망이 보여 주듯이 파쇼폭압에 환장한 《실용》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리행, 애국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자기 전적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하는것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남조선의 각계 진보세력들이 보수세력의 악랄한 파쇼체제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매일은 그들 자신이 독재권력의 무자비한 살인행정의 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나라와 민족을 등진 보수세당에게는 그 무엇보다 기대할것이 없다. 지금 보수세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증오와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치고 있다. 두손을 애국적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극악한 살인마들,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통일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들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 《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것이다.

6. 15 공동선언

그들은 선언하였다. 들의 투쟁모습을 형성한 공인 집회에서는 광주인민봉기가 있었다.



6. 15 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그 무는 《신기대혁명출정식》이라는 데서 시계목은 《색각력》을 모조리 잃어 울리며 진보세력들을 《친북파괴》로 몰아대고 못헤 제련에서 《무책임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고이였다. 한편 보수세력은 도막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류례없는 《안보》소동을 일으키면서 동족과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모조리 《빨갱이》의 감투를 씌워 처형할 흉계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최초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을 내몰아 민주총파과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 진보단체들과 그 소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과 체포, 징계소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친북파괴작전》소동을 일으켜 여론의 이목을 떠돌게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반 《정부》기운의 무정부에서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파쇼독재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또 하나의 악랄한 음모책동이다.

현실은 진보세력들의 각성과 단결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로무원의 비극적인 사망이 보여 주듯이 파쇼폭압에 환장한 《실용》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리행, 애국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자기 전적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하는것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남조선의 각계 진보세력들이 보수세력의 악랄한 파쇼체제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매일은 그들 자신이 독재권력의 무자비한 살인행정의 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나라와 민족을 등진 보수세당에게는 그 무엇보다 기대할것이 없다. 지금 보수세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증오와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치고 있다. 두손을 애국적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극악한 살인마들,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통일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들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 《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것이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지난 4월말 남조선의 제 18대 《국회》가 2년간에 걸치는 전반기활동을 끝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 활동이라는것이 폭력으로 사적되고 폭력으로 막을 내려 남조선 각계로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과 규탄을 받은것이다.

남조선의 제 18대 《국회》는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 일기를 시작하였다.

남조선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회기가 시작된 후 7일만에 첫 《법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은 오만하게 날뛰면서 《법시국회》를 열고 미국과 체결한 소고기수입협상과 관련한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하였다.

도발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지난 3월에 일어난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피피들의 반공화국도막소동이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피피당국은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합선침몰사건을 부리와 억지로 변질시킨 채 그 무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옥은 분노와 적개심을 폭발시키 고 있다.

피피들의 망동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로파적인 선전포고로서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북한관계개선을 풍지박산내고, 일심단결과 공조를 구축하여 북침전쟁의 불침을 터뜨리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조사결과》라는 데서 사건을 무작정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였지만 그것은 내외의 조소만을 지어내고 있다. 피피들은 사건발생초기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경비함이 《북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북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 《북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 《국회의원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파쇼독재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또 하나의 악랄한 음모책동이다.

이런 피피들의 망동은 그 무엇보다 기대할것이 없다. 지금 보수세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증오와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치고 있다. 두손을 애국적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극악한 살인마들,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통일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들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 《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것이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단》 구성과 당국자의 《국회시정연설》이라는것도 연기되었다.

남조선에서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는 《부정선언》시시비비로 한동안 개원식이 진행되지 못했던 제 15대 《국회》에 이미 두번째라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독주의 제 18대 《국회》는 첫시작부터 마비상태에 빠지고 《반쪽짜리 국회》, 《유임상태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었다. 그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결은 무려 3개월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한나라당》퍼거리들은 저들이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등대고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려고 무서웠다. 《국회법》마저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 동하는 《한나라당》의 망동은 야당세력의 강력한 반대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하여 제 18대 《국회》는 원내구성도 되지 못한채 란 장관이 되었다가 그해 9월에야 겨우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제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간의 대립으로 혼란에 빠지다니 《국회》전반기에서 수입협상과 내각총사퇴, 《가속건영법(방법)》개정을 요구하여 회의장정장을 거부 하였다.

그 도막살에 기초한 짜담추기로 진행 되였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술한 수사력량을 내몰아 근 소달동이나 사적인 일을 구명한다든 소만을 피웠지만 저들이 내몰린 《북개입설》을 냉철한 한 고 어떤 투쟁한 결과도 내놓지 못한 사실이다. 거짓이 진실로 될수 는 없다. 오히려 피피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남조선각계의 목소리만 높아졌을뿐이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무력대고 집고있는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것은 불순하기 그지 없다. 피피대당이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도록 그에 신빙성을 부여해라 고 모지모지 짜담한 그것은 오히려 합선침몰사건이 저들이 꾸며낸 자작극이며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유죄한 남조선이 라는것만을 방증해주고 있다. 합선침몰사건이야말로 대결에 환장한 억척대당의 전례없는 특대행사로 략국이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피피들이 이 무는 《단호한 응징》과 《정적 불사》를 떠벌며 서해해상에 무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북한관계를 전면차 단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원》을 운운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구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피대당의 진폭적이 어설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단》 구성과 당국자의 《국회시정연설》이라는것도 연기되었다.

남조선에서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는 《부정선언》시시비비로 한동안 개원식이 진행되지 못했던 제 15대 《국회》에 이미 두번째라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독주의 제 18대 《국회》는 첫시작부터 마비상태에 빠지고 《반쪽짜리 국회》, 《유임상태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었다. 그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결은 무려 3개월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한나라당》퍼거리들은 저들이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등대고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려고 무서웠다. 《국회법》마저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 동하는 《한나라당》의 망동은 야당세력의 강력한 반대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하여 제 18대 《국회》는 원내구성도 되지 못한채 란 장관이 되었다가 그해 9월에야 겨우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제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간의 대립으로 혼란에 빠지다니 《국회》전반기에서 수입협상과 내각총사퇴, 《가속건영법(방법)》개정을 요구하여 회의장정장을 거부 하였다.

한 피피들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로부터 내린 결론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에게는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과 대결광증, 북침야망만이 짝 들어차있다는것이다. 이런 무지막한 호전광증에 무순 저버가 필요한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질같이 제각이듯이 동족을 함부로 끌고들며 대결전쟁광기를 부리는 반역 피피들우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납치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현 사태를 정경적으로 간주할것이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역적대당의 《대응》과 《보복》에 대해 북남관계 전면체제, 북남불가침합의 전제조건, 북남협력사업 전면체제 등 무수한 정법로 강력히 대결해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절대로 민발을 하지 않는다. 만일 리명박대당이 무모하게 날뛰며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짓붕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피피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곧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의 처량한 장종목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단》 구성과 당국자의 《국회시정연설》이라는것도 연기되었다.

남조선에서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는 《부정선언》시시비비로 한동안 개원식이 진행되지 못했던 제 15대 《국회》에 이미 두번째라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독주의 제 18대 《국회》는 첫시작부터 마비상태에 빠지고 《반쪽짜리 국회》, 《유임상태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었다. 그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결은 무려 3개월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한나라당》퍼거리들은 저들이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등대고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려고 무서웠다. 《국회법》마저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 동하는 《한나라당》의 망동은 야당세력의 강력한 반대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하여 제 18대 《국회》는 원내구성도 되지 못한채 란 장관이 되었다가 그해 9월에야 겨우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제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간의 대립으로 혼란에 빠지다니 《국회》전반기에서 수입협상과 내각총사퇴, 《가속건영법(방법)》개정을 요구하여 회의장정장을 거부 하였다.

한 피피들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로부터 내린 결론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에게는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과 대결광증, 북침야망만이 짝 들어차있다는것이다. 이런 무지막한 호전광증에 무순 저버가 필요한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질같이 제각이듯이 동족을 함부로 끌고들며 대결전쟁광기를 부리는 반역 피피들우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납치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현 사태를 정경적으로 간주할것이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역적대당의 《대응》과 《보복》에 대해 북남관계 전면체제, 북남불가침합의 전제조건, 북남협력사업 전면체제 등 무수한 정법로 강력히 대결해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절대로 민발을 하지 않는다. 만일 리명박대당이 무모하게 날뛰며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짓붕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피피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곧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의 처량한 장종목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를 폭력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치깡패들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단》 구성과 당국자의 《국회시정연설》이라는것도 연기되었다.

남조선에서 《국회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는 《부정선언》시시비비로 한동안 개원식이 진행되지 못했던 제 15대 《국회》에 이미 두번째라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독주의 제 18대 《국회》는 첫시작부터 마비상태에 빠지고 《반쪽짜리 국회》, 《유임상태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었다. 그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결은 무려 3개월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한나라당》퍼거리들은 저들이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등대고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려고 무서웠다. 《국회법》마저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 동하는 《한나라당》의 망동은 야당세력의 강력한 반대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하여 제 18대 《국회》는 원내구성도 되지 못한채 란 장관이 되었다가 그해 9월에야 겨우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제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간의 대립으로 혼란에 빠지다니 《국회》전반기에서 수입협상과 내각총사퇴, 《가속건영법(방법)》개정을 요구하여 회의장정장을 거부 하였다.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피피군 제 11사단이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 파주, 고양지역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기동훈련을 벌일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호전광들은 이번 군사연습이 끝나고 6월말에 대미한 《작전수행능력 및 의무수행력 강화》를 위한것이라고 췌치면서 여기에 방대한 규모의 병력과 전정병비 지어 경찰과 민간인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최근 피피호전광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단계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키며 정세를 전정정경에도 몰아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부패성은 막을수 없다

작은 저울로도 천근의 무게를 잴 수 있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변론한 교수가 일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죽어서 분골이로 심사자들에게 총을 판사한 사건은 서방이 그처럼 자랑하는 《문명》과 롤리도덕이 어떤것인지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도덕적부패성은 취약하고 비도덕적이야 부정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일면은 보여주었다. 온갖 모순과 사회의 타락속에 깊숙이 잠겨있는 반인민적이야 반동적인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부패성은 그 무엇보다도 감출수 없고 막을수도 없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덕적부패성은 착취계급사회의 불치의 병이며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도에 이르게 된다.》

계급모순과 대립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는 진정한 도덕과 롤리란 없다.

도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행동규범이다. 그러나 롤리도덕은 인간의 사상감정과 결부된 행동의 윤리적것으로 하여 계급사회에서는 철저한 계급성을 띠게 된다.

반동적인 사상인 개인주의는 착취계급의 도덕과 멀수 없이 변태되어있다. 사적소유제도의 산물인 개인주의는 착취사회의 사상적기초로 되고 있다. 개인주의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배치되는 반동적인 사상으로서 사람들을 하여 오직 자기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사적소유와 개인주의는 계급적본성과 대립, 사회적불평등을 낳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가져온다.

세계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무시되고 무방한 짓밟히는 자본주의사회는 인본도덕의 폐허이며 부정부패의 본산지, 서식장이다. 자본주의사회에 도덕이 있다면 가장 반동적이야 반인민적인 부르조아도덕만이 존재할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덕적부패성은 황금만능의 생활방식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사회는 황금만능의 사회이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만물의 병장》으로 되어 모든것을 지배하며 좌지우지한다. 봉건사회에서는 문벌과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였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돈이자 사람과 인간의 인격이고 가치이므로 금전관계는 떠난 인간관계, 도덕관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그 어떤 악덕도 미덕으로 만들어주고 정신적불자유도 권력의 자리에 오를수 있게 한다. 늘가는 오리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개가 주지사로 선거되는 웃지 못할 정치만화가 연출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조아들은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절대적권한을 행사한다.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계급적압박과 착취의 대상으로, 희생물리로 되고있다. 이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계급적모순과 불평등, 대립관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있다. 지체계급과 피지체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양극분화, 멸시와 증오, 불평등과 대립이 사회관계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상한 도덕의리의 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의를 바탕으로 하여 산생되는 계급적모순과 사회적불평등은 진정한 롤리도덕을 파괴하고 도덕적부패성을 낳는 근원이다.

도덕의 건전성과 진보성의 기준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다.

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략하며 모든것을 좌지우지한다. 돈있는 강자는 돈없는 약자를 해치며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어오만 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고유한 생존원리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자는 사생결단으로 남을 더디고 올라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르조아정객들이 자신은 자본주의사회를 가리켜 《생명을 빼먹는 사회》, 개인 대 개인의 암투와 경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사회라고 실어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자, 극빈자, 굶주림과 병마에 신음하며 고통과 죽음의 신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수백수천만명을 헤아리지만 그들에 대한 동정과 자비심이란 찾아볼수 없다. 《인권존중》을 끝날 표방하는 정부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말대로 인간애와 동정의 의협심이 말라버린 맹형동물들의 세계이다. 이런 세상에서 도덕적부패성이 심화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행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인종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는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며 도덕적부패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가들은 상품판교가 점점 더 마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행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그들이 사치와 부화방랑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마약,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불자유로 전락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적부가 늘어남수록 더욱더 빈곤화되고있는 정신문화생활은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치며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어오만 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고유한 생존원리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자는 사생결단으로 남을 더디고 올라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르조아정객들이 자신은 자본주의사회를 가리켜 《생명을 빼먹는 사회》, 개인 대 개인의 암투와 경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사회라고 실어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자, 극빈자, 굶주림과 병마에 신음하며 고통과 죽음의 신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수백수천만명을 헤아리지만 그들에 대한 동정과 자비심이란 찾아볼수 없다. 《인권존중》을 끝날 표방하는 정부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말대로 인간애와 동정의 의협심이 말라버린 맹형동물들의 세계이다. 이런 세상에서 도덕적부패성이 심화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행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인종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는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며 도덕적부패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가들은 상품판교가 점점 더 마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행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그들이 사치와 부화방랑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마약,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불자유로 전락하고있다.

도덕적부패성은 자본주의사회의 고유한 속성이며 사상 《중양》이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불자유로 전락하고있다.

배 금 회

메히꼬 신문의 글

메히꼬신문 《우니다스 나제 오날》 15일부가 평양시전경 사신을 신고 《조선의 정신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60여년의 역사는 경이적인 사면들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2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조선전쟁에서 세계 《희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것, 제2차 미승에서도 짧은 기간에 전후 복구건설을 끝내고 단 14년 동안에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수행한것, 지난 세기 말엽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끝끝내 고수하고 오늘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것 등은 보통의 상식이나 롤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조선에만 있는 특수한 위력, 조선인민의 정신력으로만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투철한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 바로 이것이 조선의 정신력이다.

조선의 정신력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근본바탕을 두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깨닫게 하여 어떤 강한 자주정신을 지닌다면 세상에 못배 할 일 없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시원은 간고한 항일투쟁투쟁을 벌인 조선의 혁명가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항일대전의 날에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일심단결의 정신은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고정화로, 근본분자로 되었다. 그리고 명도자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 정신,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과 함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 혁명적투쟁정신 등은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신문은 조선인민의 정신력으로써 만반을 이겨내고 승리를 해왔다고 하면서 탁후한 농업국가가었던 조선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천리마대군군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계속국의 자들의 극도에 이른 알살적동과 군사적위협, 편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승운으로 전환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는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무모한 《대중》에는 정의의 전진정열이 도대합했었다》를 20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를 배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내외의 음모를 오도하는것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또한 이 사건을 모종의 정치, 군사적목적 추구를 위해 꾸며낸 《모략극》,

《남조국》으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이 《천안》호의 침몰을 조선과 연결되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렬단언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라고 하면서 결렬단언에 함침침몰이 조선과 연결되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하며 그 물증에는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그 어떤 《용징》과 《모욕》, 《제재》에 대해서도 조선은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담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공언한이상 조선사해를 포함하여 조선의 주권이 행사되는 명해, 명공, 명도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도발로 락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라적,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로제야의 사파르—따프동신, VOX방송, CNN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아사히신보》, 《도쿄신보》, 《니혼게이아이신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보도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안을 배격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7일 한 담화석상에서 이스라엘의 러무니없는 제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수리아정부에 《이란과 기타 항쟁세력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팔관회원을 반환할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라는 수

항쟁을 계속할 리장 천명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의 위원 아브넬 라힘 말로흐가 17일 라말라도시에서 진행된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항쟁을 계속할 리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이상 팔레스티나인들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고 팔레스티나영토를 강점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은 자유를 쟁취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강점을 끝낼때 까지 계속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메바논에 국력항조직인 히즈볼라흐 부총리서기 17일 한 담화석상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에 맞서 항쟁을 강화할 리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히즈볼라흐가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에 짓부실수 있는 보다 강한 무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히즈볼라흐의 항쟁투쟁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알콜 생산을 늘이기 위해 올해에 9만9천의 토지를 개량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토지개량사업은 43개의 기, 현과 5개의 큰 농장들에서 진행되고있다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1.4분기 경제가 10.1% 성장하였다. 이것은 지난 10년래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한다. 까 드에서 카타르에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수도교외에 새 발전소가 건설되어 18일에 조업하였다. 또한 지금 나라의 북부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고있는데 그 1단계공사자 올해말에 완공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요르단에서 올해 1.4분기에 다른 아랍나라들에 대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감소되었다.

메히꼬에서 메히꼬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례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현재 나라의 중남부지역에 첫



당국의 건축정책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리는 그리스근로자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투쟁

일본의 오키나와현에서 16일 미군기지반대투쟁이 벌어졌다. 이날 후텐마미군기지에 모인 약 1만 7 000명의 각계층 운동은 서로 손을 잡고 기치를 에워싸는 《인간사슬》을 형성하고 《미군기지를 철

지 진 일본은 류큐열도에서 16일 리히터척도도 5.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렬도부근수역 물밑 34.5km 깊은 곳에 있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난민문제

세계적으로 피난민이 계속 늘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8일 유엔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해 세계 여러

제 13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아시아나라의 한 기업체가 출품한 전시장에 들린 우리는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전시장의 주인이 없었다. 우리가 안내일꾼에게 그가 어디 갔는지 물으니 우리 나라의 한 기술센터에서 전시해놓은 공장 및 작업과수련환기전시장에 가있을것이라고 대답하였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기술센터와 합작하자고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찾았다. 아나나루가 그곳에서는 우리 일꾼과 외국인사이에서 한창 이아기판이 벌어지고있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전시장을 《머리》고온 그 외국인이었다.

활발히 벌어지는 태양에너지 개발사업

오늘 세계적으로 에네르기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최근 국제에네르기기구는 2050년에 가서 태양에너지가 세계전력생산량의 4분의 1을 감당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태양에너지개발의 효과성과 발전전망에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계적인 에네르기기술혁명발진추세에 따라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태양에너지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인디아정부는 2013년까지 태양에너지에 의한 연간 발전능력을 100만 kW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으며 필리핀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태양에너지 등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캄보디아의 농촌지역에 최근년간 500개의 태양열발전소가 건설되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스리랑카의 동남부지역에 일출선 태양열발전소에서는 300세대의 가정들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아랍장국련방에서는 수도의 서부지역에 10MW능력의 태양열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있는데 올해에 완공되게 된다 한다. 에집트에서는 홍해도에 건설된 발전능력이 14만kW에 달

태양열발전소운영을 잘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마르코에서 2020년까지 5개의 태양열발전소를 더 세워 나라의 전력생산량을 38% 늘일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알제리정부는 재생에너지가개발리용분야에서 태양에너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모잠비크에서는 태양에너지를 리용하여 농촌지역의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한편으로 인공비네추와 조발라추에 있는 농촌마을들에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설비 2500개가 설치되고 600여개의 학교와 진료소에 태양발전지가 도입되었다.

뉴시정부는 태양에너지기를 리용한 발전소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있으며 잠비아에서는 에네르기개발을 위한 계획에 따라 올해 7개 추에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할것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태양에너지를 리용하는 고기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고기계에 태양에너지수집장치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네르기로 배가 4시간 항행할수 있다 한다. 한편 지중해연안 나라들과 북아프리카나라들은 사막의 기후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태양에너지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막계획》 실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시간을 아껴가며 전시장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느니라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 곳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선진

제 13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제 13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장은 돌아보고

우리의 대답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역시 강강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나가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알고보니 그는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이란대표단 선원이었다.

그는 《아, 이 제품들이 주체적으로 만든것들이니까?》라고 물었다. 우리 일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감탄을 표시하는것이였다. 이때 한 외국인은 그에게 대한 설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제촉하는것이였다. 설명서와 제품들을 한창 들여다보던 그는 《같은 불수강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의것보다 좋습니디. 질적으로도 말 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었다.

생활지치 악화

일본후후로동정은 1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3월 말에 끝난 2009회계년도에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3.3%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연속 3년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계속되는 임금감소로 근로자의 생활지치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한다.

생계비 인상

유럽동맹 선원들에서 생계비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18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4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선원국에서 생계비가 그전달에 비해 1.5%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운수단위급이 5.9%씩씩었다 한다.

리용 감소

일본의 금융업체인 《스미도모 미즈이》회사는 14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3월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기업에서 리용이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6.5%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진전화업체인 《엔티비》회사에서도 리용이 2.3% 감소되었다 한다.

물가 인상

영국에서 물가가 계속 뛰어나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8일이나 중앙통계국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올해 4월에 전국적으로 물가가 그전달에 비해 3.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온과 식료품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

제 13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역시 강강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나가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알고보니 그는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이란대표단 선원이었다.

그는 《아, 이 제품들이 주체적으로 만든것들이니까?》라고 물었다. 우리 일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감탄을 표시하는것이였다. 이때 한 외국인은 그에게 대한 설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제촉하는것이였다. 설명서와 제품들을 한창 들여다보던 그는 《같은 불수강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의것보다 좋습니디. 질적으로도 말 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역시 강강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나가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알고보니 그는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이란대표단 선원이었다.

그는 《아, 이 제품들이 주체적으로 만든것들이니까?》라고 물었다. 우리 일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감탄을 표시하는것이였다. 이때 한 외국인은 그에게 대한 설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제촉하는것이였다. 설명서와 제품들을 한창 들여다보던 그는 《같은 불수강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의것보다 좋습니디. 질적으로도 말 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역시 강강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나가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알고보니 그는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이란대표단 선원이었다.

그는 《아, 이 제품들이 주체적으로 만든것들이니까?》라고 물었다. 우리 일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감탄을 표시하는것이였다. 이때 한 외국인은 그에게 대한 설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제촉하는것이였다. 설명서와 제품들을 한창 들여다보던 그는 《같은 불수강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의것보다 좋습니디. 질적으로도 말 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역시 강강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나가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때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알고보니 그는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이란대표단 선원이었다.